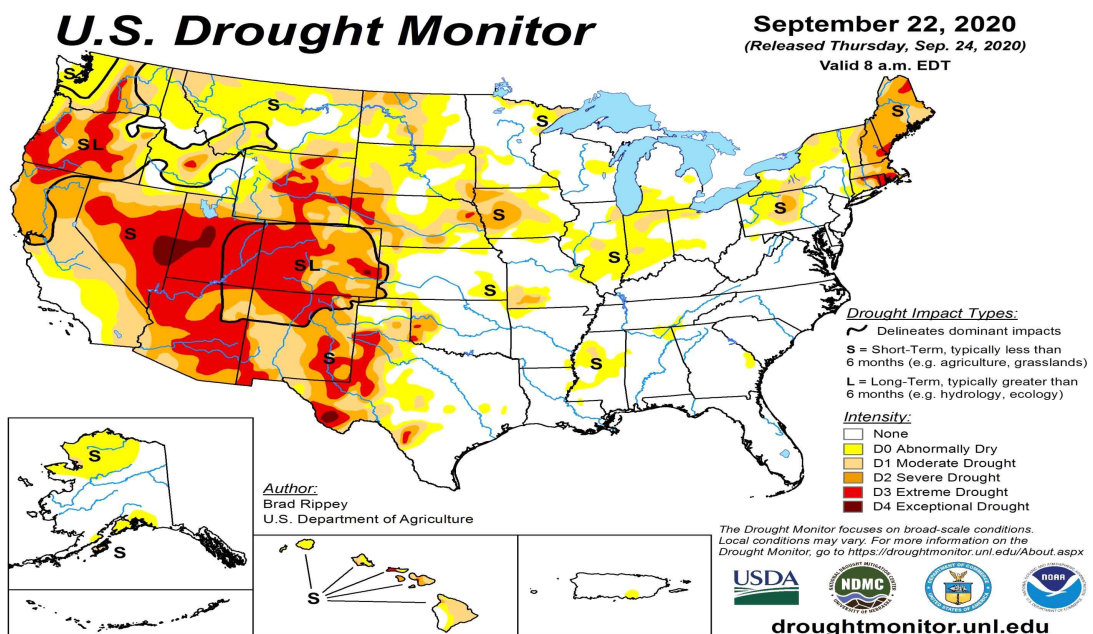


9월 2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39)

□ 미국 기후 현황(9/20~9/26)

열대성 폭풍 베타가 9월 21일 오후 10시경 (하절기 중부 표준시) 시속 45 마일의 지속 풍속으로 텍사스 주 포트 오코너 근처에 상륙했다. 내륙에 들어온 이후로 느리게 움직인 베타는 약화되어 북동쪽으로 돌아 미시시피 삼각주를 건너 9월 25일 남동쪽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와 관련된 폭우로 인해, 특히 텍사스 중부 및 상부 해안을 따라 그리고 그 근처에서 지역 홍수가 발생했다. 베타가 일으킨 폭우는 면화, 벼, 및 대두처럼 아직 수확하지 않은 여름 작물들에게 위협이 되었다. 9월 20일 현재 미시시피 삼각주에서 면화 꼬투리의 개화 비율은 테네시의 50%에서 루이지애나의 95%까지 다양했다. 미국 내 나머지 지역의 날씨는, 오대호 위쪽에 내린 몇 차례의 소나기와 북서부에 내린 약간의 강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건조했다. 평원과 중서부 전역에서 온화한 날씨가 겨울 밀의 파종은 물론이고 옥수수 및 대두의 성숙 및 수확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이 방목지와 목초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미국 서부의 많은 곳에서 가뭄이 우려점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이번 주 늦게 날씨가 더워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서부에 여러 건의 새로운 산불이 일어났다. 서부에서 우세했던 주간 기온이 거의 평년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았는데 포 코너스 주들에서는 평년 대비 가장 더운 날씨가 발생했다. 미국 중간 구역 전체에서 폭염이 다시 발생하여 고원 중앙에서부터 먼 중서부 지역까지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최소 10° F 상승시켰다. 대조적으로, 버지니아와 남북 캐롤라이나 주들에서는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10° F 가량 낮았다. 오하이오 계곡처럼 먼 북쪽까지 남부의 많은 곳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 농업 현황 요약 (9/21~9/27)

나라의 대부분이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열대성 폭풍 베타가 대서양 중부 일부, 미시시피 계곡, 남동부 및 텍사스 동부에 평년보다 많은 강수를 일으켰다. 삼각주 일부와 텍사스 남동부에는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태평양 북서부와 로키 산맥 북부 일부에도 평년 이상의 강수가 있었고 워싱턴 일부 지역에는 최소 6인치의 비가 내렸다. 오대호 대부분, 대평원 및 미시시피 계곡 상부는 물론이고 미국 서부 대부분에서 평년 이상의 기온이 기록되었다. 오대호 일부, 대평원, 로키 산맥 및 미시시피 계곡 상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9° F 이상 높았다. 대조적으로 대서양 중부, 델타, 남동부 및 텍사스 동부는 평년보다 더 선선하여 이 지역의 대부분의 기온이 평년보다 4° F 이상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9/20~9/26)

■ 유럽: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상당히 내려오면서 대륙의 많은 곳에서 날씨가 습해졌다. 6월 중순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토양에서 겨울 작물 파종에 필요한 수분이 사라진 프랑스에 광범위한 소나기 (북부는 5~30 mm, 서부와 남부에는 50 mm 이상)가 내려서 겨울 밀과 유채의 활착 전망을 개선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내린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북부 주요 겨울 작물 지역에서 가뭄을 없애고 토양 수분 프로파일을 완전히 보충해주려면 상당히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나머지 유럽의 많은 곳들에도, 특히 이전에 건조했던 영국과 유럽 남동부 지역에서, 중간 내지 강한 비 (10~50 mm, 지역적으로 남부 재배 지역 몇 곳에서는 더 많이)가 내려서 겨울 보리, 밀, 유채의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었다. 습한 날씨 패턴에도 불구하고 독일 북부 (5mm 이하)는 소나기들이 대체로 우회하여 이곳의 토양은 겨울 작물이 적절하게 활착하기에는 대체로 너무 건조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스페인에서는 대부분의 겨울 곡류 파종이 대개 선선한 우기가 확실히 정착된 늦가을에야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스페인 북부에 내린 다양한 수준의 소나기와 뇌우들 (1~25 mm)이 겨울 밀과 보리의 출현을 위해 필요한 표토 수분을 공급했다. 소나기가 그리스에도 머물러 있었는데 이곳의 생산자들은 ‘메디케인 이아노스’의 강풍과 폭우가 수확되지 못한 면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9월 28일자 그리스 남부의 위성 영상에 따르면 추가로 강한 소나기들이 내린 것이 분명해서 복구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 서부 경작지의 기온이 더 선선했던 (평년보다 1~3° C 낮은) 것이 주말까지 대륙을 휩쓸고 있었던 급격히 추운 기단에 대한 전조이긴 했지만, 중유럽과 동유럽 전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 C 높았다.



■ 구소련(서부): 한층 강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이 이 지역의 많은 곳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2년 연속 겨울 밀의 활착 전망을 더욱 낮추고 있었다. 서러시아에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어서 러시아 불가 지구의 동쪽 끝을 제외하면 그 지역 전체에서 측정 가능한 강우량은 보고되지 않았다. 7월 15일 이후 우크라이나의 지역 평균 강우량은 남부의 주요 겨울 밀 오블라스트(州)에서 평년의 30% 미만, 동부 경작지에서 25%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겨울 밀 활착 조건은 악화되었다. 8월 5일 이후 남부 지구(남쪽에서 북쪽으로)의 총강우량은 크라스노다르에서 평년의 25%, 로스토프에서 10%, 볼고그라드에서 25% 미만이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 스타프로폴(북 카프카즈 지구)의 총강우량은 평년의 25% 이하로 빈약했다. 전 지역에 걸쳐 계절적으로 더 추운 날씨가 겨울 작물들을 휴면 상태로 이끌기 전에 수분이 곧 필요할 것이다.

■ 동아시아: 유익하게 더 건조한 날씨가 중국 북동부와 한반도에 퍼졌다. 계절을 벗어난 심한 강우(주로 태풍과 관련된) 이후에 평년보다 1~2° C 높은 기온과 함께 더 건조한 조건이 여름 작물들의 성숙을 촉진했다; 8월 1일 이후로 내린 강우량은 일부 지역에서 평년에 내린 양의 거의 4배에 달했다.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도 화북 평원에서 여름 작물들의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습한 날씨가 중국 남부 전역에서 계속되어 양쯔 계곡의 수확을 늦추었지만 최남단 지방에서는 미성숙 이모작 벼에 대한 수분 공급을 상승시켰다. 그밖에 열대성 사이클론(돌핀)이 일본 동부 해안에서 소멸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25~100 mm 이상)를 일으켜서 혼슈 북부 일부에 계절성 가뭄을 완화했다. 하지만 가뭄이 가장 심한 일본 최북단(홋카이도)에는 더 많은 강우가 필요하다

■ 호주: 호주 남동부 대부분에 적시는 비(15~50 mm)가 널리 내리면서 밀, 보리 및 캐놀라의 전망을 양호하게 또는 지역적으로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많은 겨울 작물들이 생식기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는 아주 시기 적절했고 유익했다. 서호주에서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5~15 mm)가 생식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유익했지만 어떤 지역들에서는 수확량 잠재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좋을 것이다. 밀 벨트 내 다른 지역들 중에서 퀸즐랜드 남부의 주요 농작물 생산 지역들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5 mm 미만).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미성숙 밀과 기타 겨울 작물들에게 좋지 못했고 일찍 파종한 여름 작물들의 발아를 촉진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는 표토 수분의 양을 제한했다. 평균 기온이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평년보다 2~3° C 높았고, 남호주와 빅토리아 북서부에서는 평년보다 2~3° C 낮았으며,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평년에 가까웠다.

■ 아르헨티나: 중앙 아르헨티나에서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높은 생산 지역에 내린 소나기가 미숙한 겨울 곡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라 팜파에서부터 동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전역을 지나 코르도바, 산타페 및 엔트레리오스 인근 장소들까지 내린 총강우량은 25~50 mm 였다 (지역적으로는 100 mm 이상). 그러나 라 팜파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남부 겨울 곡류 지역들과 코르도바 중부와 엔트레 리오스 북부에서부터 북부 국경까지 뻗어 있는 북부 지역 모두를 포함해서 다른 아르헨티나 농업 지역들은 건조했다. 코르도바처럼 먼 북쪽에서 결빙 (야간 최저 기온이 -2°C 이하로 강하)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대부분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높았다. 이 서리가 미숙 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다. 대조적으로 북부에서는 여름같은 더위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대 중반에서 낮은 40도대까지의 범위)가 가뭄의 영향을 악화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9월 24일 현재 해바라기는 24% 과중되어 작년보다 12 포인트 뒤쳐졌다. 옥수수는 작년의 14%와 비교해서 16% 과중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코르도바에서는 옥수수가 각각 3% 및 11% 과중되어 두 주 모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 지방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콩 과중이 광범위하게 시작되기 전에 추가 강우량이 필요할 것이다. 마토 그로소 남동부와 고이아스 남부에 총 10 mm가 넘는 양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주요 생산 지역은 건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여름 더위 (40°C 에 달하는 기온) 때문에 비가 내리는 몇 지역에서 증발 손실이 높게 유지되었다. 건조함이 리오 그란테 도 술을 지나 남쪽으로 확대되어서 농민들이 추가 강우를 환영할 것이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밀은 9월 21일 현재 44%가 수확되었지만 나머지의 43%는 여전히 영양기에서 종실비대기 범위 사이에 있었다; 2차 작물 옥수수는 98% 수확되었고 1차 작물 옥수수는 34% 과중되었다. 대조적으로 리오 그란테 도 술에서는, 아직은 수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9월 24일 현재 밀의 9% 만이 성숙에 도달했다; 많은 지역에서 옥수수 과중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州) 수준의 통계는 제공되지 않았다. 브라질의 다른 지역 중에서, 미나스 제라이스 남부 부근에서 비 (5~25 mm)가 커피의 개화를 시작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곳은 건조가 만연했다.